

[금융 AI/AX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]

작성일시: 2026년 02월 11일 06:48 (KST)

1. 정부/금융당국 정책 동향

- **금감원 IT 인력 이탈 문제:** 금융감독원의 IT 인력 이탈이 빗썸, 쿠팡 등 디지털 금융 사고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 이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시대에 금융당국의 IT 및 보안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줌. (마켓인, edaily.co.kr)

2. 금융보안 동향

- **보이스피싱 주의보:** 약국가를 대상으로 '제세동기' 관련 문의를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시도가 발생했으며,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10계명이 발표되는 등 금융사기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음. (약사공론, insight.co.kr)
- **보험사기 발생:** 인카금융 총주지점이 치과와 공모하여 20억 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건이 드러나, 금융권 내부 통제 및 사기 방지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됨. (뉴스1)

3. 4대 금융지주/시중은행 AI/AX 동향

- **우리금융:** 우리금융은 '생산적 금융 전초기지'로서 실적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. (네이트)
- **지방은행 (BNK금융):** BNK금융그룹은 ESG 정보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외 기준 고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. (파이낸셜포스트)
- **KB금융/KB국민은행:** 관련 뉴스 없음
- **신한금융/신한은행:** 관련 뉴스 없음
- **하나금융/하나은행:** 관련 뉴스 없음
- **NH농협금융/NH농협은행:** 관련 뉴스 없음
- **인터넷은행 (카카오뱅크, 케이뱅크, 토스뱅크):** 관련 뉴스 없음
- **지방은행 (DGB금융/대구은행, JB금융/광주은행/전북은행, 제주은행):** 관련 뉴스 없음

4. 증권/카드/보험 AI/AX 동향

- **증권사 AI 활용:** 증권사들이 AI를 활용하여 투자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고 있으며, 이는 금융 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음. (소비자가 만드는 신문)
- **신한투자증권 상품 완판:** 신한투자증권의 '신한Premier 발행어음' 특판 상품이 단기간에 완판되는 등 상품 경쟁력을 보임. (비즈월드)

5. 핀테크/빅테크 동향

- 관련 뉴스 없음

6. 주요 키워드 및 인사이트

- **주요 키워드:** 금융 AI 인력 이탈, 보이스피싱, 보험사기, 에이전틱 AI, 데이터 인프라, AI 대체 우려, 금융서비스주 하락.
- **향후 전망 및 시사점:**
- **AI의 양면성:** AI는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사고 예방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지만(증권사 사례), 동시에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금융서비스 관련주의 급락으로 이어지는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. AI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전략 마련이 필요함.

- **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:**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AI 모델 자체의 성능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분석을 위한 견고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. 이는 금융기관의 데이터 거버넌스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.
 - **금융당국의 인력난 및 대응 역량 강화:**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고도화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IT 및 보안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함.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및 소비자 보호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, 인력 유출 방지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이 중요함.
 - **지속적인 금융사기 위협:** 보이스피싱, 보험사기 등 전통적/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끊이지 않고 있어, 금융기관과 당국의 보안 시스템 강화 및 대국민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함. 특히 설 연휴 등 취약 시기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예방 노력이 요구됨.
-